



가각국의 고도, 가야문화의 본고장 김해시·군

누구나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 대해서 사랑과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은 상정(常情)이라 하겠다. 태어난 곳이 유독히 전설과 역사가 서린 곳이거나 유서깊은

곳이며 게다가 풍광마저 수려한 곳이고 보면, 그 또한 너르지게 사랑할 수 있다. 사람을 일컬어 망향의 동물이 라고 한다. 모든 동물이 귀소의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회로애락 등 수많은 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유독 더한 것 같다.

어쨌거나 누구나 자기가 태어난 지역을 항상 생각하고 그리며, 사랑하고 또 잊지 못한다.

“김해를 가려면 어디서 버스를 타야 합니까?”

“저, 시외버스터미널로 가서 애, 진영으로 해서 김해·부산으로 가는 완행버스나 직행을 타면 됩니더 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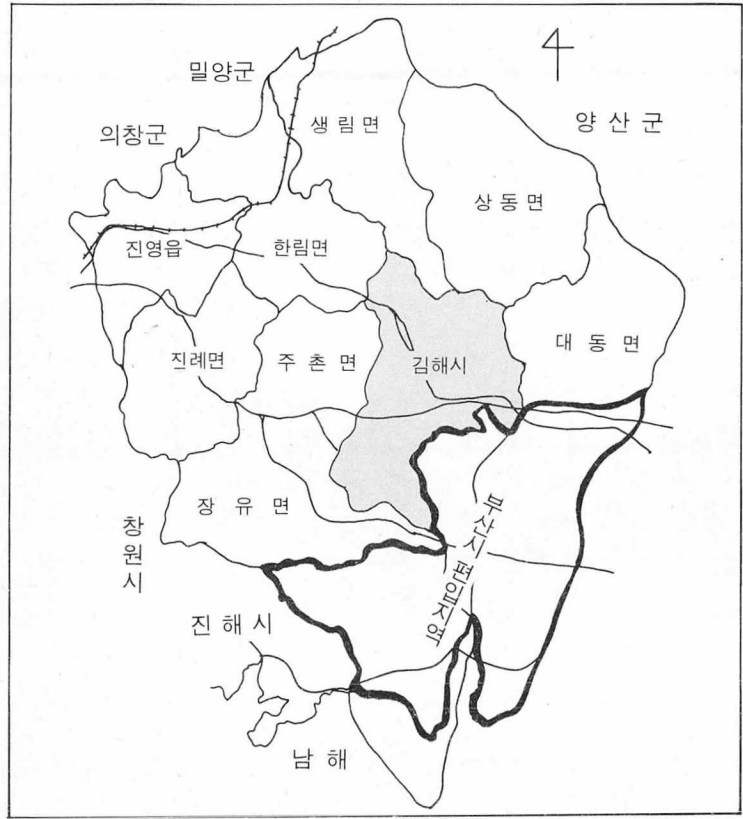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마산에서 어느 행인에게 김해로 가는 길을 여쭙어 본 일문일답이다.

김해에 도착했을 때 투박스러운 경상도 특유의 사투리가 조금 거리감은 있었지만, 중소도시의 평온하고 온화한 느낌은 찾는이의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했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아니 내어 놓으면 구워 먹으리」



《김해시·군 행정구역도》

구간(九干)들이 수로왕을 맞이할 때 불렀다는 구지가 영대왕가로서 우리나라 가요중에 서는 가장 오래된 노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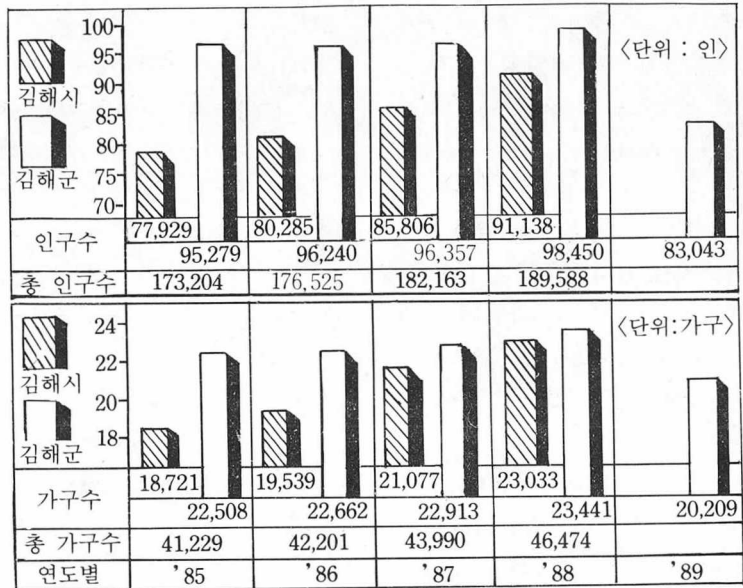
구지봉에 올라 무심코 바라본 남쪽 하늘 밑에서 그윽한 향수가 살아 숨쉬고, 멀리 여정을 더욱 질게 했다.

삼한시대부터 변한의 구사국으로 가야문화의 중심지

김해는 지리상으로 경상남도 의 동남북에 있어 동서가 37km, 남북은 32km이다. 동으로 양산군과 부산직할시, 북으로는 밀양군과 양산군, 서로는 의창군·진해·창원군과 경계하며, 남으로는 남해와 접하고 있다.

이와같이 낙동강의 하구에 위치한 김해는 삼한시대부터 변한의 구사국으로서 가야문화의 중심지를 이룩하여 멀리 한의 영지인 낙랑군·대방군 및 일본과의 중계무역항으로서 번창했다.

특히 가락고도이기는 하나 그 역사가 영생하다. 가락국의 시조 수로왕이 처음 이 땅에 가야의 종주국인 금관국을 세운 이래 수많은 유물과 유적이 있었으나, 후인들의 무관심 속에 지금은 몇 군데의 지적 사적이 남아 있을 뿐이다. 김수로왕릉을 비롯한 허왕후릉과, 장유화



〈그림1〉 김해시·군 인구 및 가구수 변동 추이

상이 불교를 직접 이 땅에 도래케 함을 증명하는 왕후시창건 및 금관성, 명월사, 장유화상사리탑, 구지봉, 패총, 성곽, 불상 등이 여기저기 산적한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문화부가 창원시에 가야문화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자 지역관계자, 학자, 재야사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당연히 가야문화의 본 고장인 김해에 설치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가야문화는 일본문화의 원류라고 지적하고 해마다 많은 일본인들이 고도 김해를 방문하고 있어 이에 상응할 만한 문화연구소는 필히 김해에 두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만큼이나 어제를 잃어 버렸던 안타까움 속에서 가야사의 재조명을 귀한 김해의 방문은 거리를 활보하는 시민들의 인상에서 깊은 정감을 얻었다.

마산시에서 직행버스를 타고 가면 약 40분, 부산에서는 약 40분 남짓하면 그 이름도 유명한 김해 땅을 밟게 된다.

'81년 김해읍이 시로 승격, 김해군은 현재 1읍 7개면으로 구성

김해는 '77년 도시계획이 수립되면서 점차 그 면모가 변하기 시작했다. 종전에 3읍 10면이었던 것이 '78년 대저면·명

지면과 가락면의 강동지구가 부산직할시에 편입됨으로써 2읍 9면으로 축소되었다. '81년 7월 김해읍이 시로 승격되어 1실 9과 10동으로 시 행정을 보게 되었고, 군은 9여년동안 1읍 9면으로 행정업무를 관할해 오다 '89년 1월에 가락면과 녹산면이 부산직할시로 편입돼 현재 1읍 7개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면적은 김해시가 63,895km² · 김해군이 468.41km²로 시·군을 합해 4만6천4백70여 가구에 인구는 18만9천5백여명이 살고 있다. 인구 및 가구분포현황을 보면, 김해시는 '88년

2만3천여가구에 9만1천1백여명, 김해군은 2만3천4백여가구에 9만8천4백여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김해군의 경우 '89년에는 2개면(가락면·녹산면)이 부산으로 편입됨에 따라 인구는 1만5천명, 가구는 3천2백여가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돈업을 하기에 시장성이 유리한 부산 등의 대도시가 연접

낙동강은 김해의 물줄기이다. 선암에는 중적평야가 하류 따라 연결되고, 하류에는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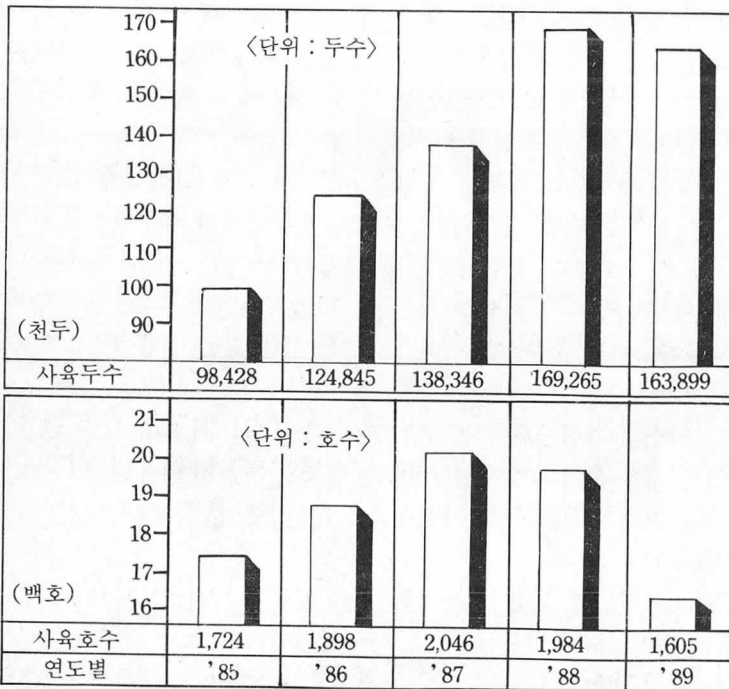
토사를 운반·퇴적하여 경상남도 제일의 김해삼각주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김해평야는 낙동강에 의한 중적지와 퇴적삼각주로서 구성되어 있다. 토양은 이사토로서 비옥한 농경지를 이루어 전국 유수의 대곡창으로서 부산직할시의 식량 및 채류공급지가 되고 있다. 특히 과일로 유명한 진영단감은 전국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에 못지않게 양돈업도 시장성이 유리한 부산 등의 대도시가 인접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빠른 성장·발전을 거듭해 왔다. 본회에 가입한 회원이 1백50농가임을 감안해 보아도 양돈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89년 김해시·군 양돈농가는 1천6백5농가, 사육두수는 16만3천8백여두

김해시·군지역에서는 '89년 현재 1천6백5농가가 양돈업을 경영하고 있다. 이중 김해시는 2백9농가, 김해군은 1천3백96농가로서 이들 농가에서 김해시가 1만2천여두, 김해군이 15만1천8백여두로 총 16만3천8백여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개면이 부산직할시에 편입돼 '88년의 1천



〈그림2〉 연도별 김해시·군 돼지사육두수 및 사육호수 변동 추이

〈표1〉 연도별 김해시·군 돼지사육두수 및 사육호수 현황

시·군	연도(구분)		'85		'86		'87		'88		'89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김해시	12,133	329	18,775	335	14,376	379	16,943	341	12,077	209		
김해군	86,295	1,395	106,070	1,563	123,970	1,667	152,322	1,643	151,822	1,396		
계	98,428	1,724	124,845	1,898	138,346	2,046	169,265	1,984	163,899	1,605		

〈표2〉 김해군 읍·면별 돼지사육두수 및 사육호수 현황

연도(구분)	읍·면	진영읍	장유면	주촌면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계
		'89	두수	6,406	8,583	14,451	4,577	45,335	34,242	26,459
	호수	65	220	173	58	247	179	182	272	1,396

〈표3〉 김해시·군 종돈업 현황

농장명	대표자	소재지	혈통등록두수			일반 검정두수	기간중 종돈판매두수
			계	♀	♂		
삼광농장	박철곤	김해군 한림면 안곡 701-2	236	200	36	214	208
성림축산	홍성태	김해군 주촌리 원지 220	263	235	28	200	410
태화축산	이시길	김해군 한림면 안곡 156	277	253	24	249	394
옥천농장	강복균	김해군 한림면 용덕 556	153	141	12	123	146

자료: 농림수산부 종돈업 통계자료('89년 6월 현재)

9백80여 농가에 비해 3백70여 농가, 16만9천2백여두보다는 5천3백여 두가 줄어들었다.

김해군 읍·면별 돼지사육두수 및 농가수를 보면, 대개 큰 농장이 많은 한림면이 2백47농가에 4만5천3백35두로 가장 많고, 생림면이 3만4천2백42두(1백79가구), 상동면, 주촌면, 대동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한림면과 생림면에서 50%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더불어 종돈장으로서 삼광농장(대표: 박철곤), 성림축산(대표: 홍성태), 태화축산(대표: 이시길), 옥천농장(대

표: 강복균) 등 4개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이들 종돈장들은 본회 검정소 출품성적이 우수한 업체들로서, 앞으로 우리나라 종돈업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도시 인접지역이라는 유리한 점 이외에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양돈장의 폐수처리로 양돈업의 계속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은 점이다. 특히 땅값 상승으로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이 사육규모를 늘이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돼지사육농가가 계속 늘어날 것인지는 의문으로 남

아 있다.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김해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정부기관은 물론 ▲김해축산업협동조합 ▲경남부산양돈업조합 ▲대한양돈협회 김해지부 ▲대한수의사회 김해분회 ▲축산기업조합 ▲덕성산업(주) 등의 축산관련단체 및 업체들과 양돈인들이 성장의 기틀을 가속화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역사의 달레마로만 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을 위해 그동안에 겸비한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한다면 양돈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밝을 것으로 확신한다. 